

교통약자 복지 높아진다

완주군, '장애인 희망콜' 8대로 증차 각 읍·면 수요에 맞춰 분산 배치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든든한 이동수단이 돼주고 있는 완주군의 장애인 콜택시가 내년 1월부터 '장애인 희망콜'이란 새로운 이름하에 증진보다 증차되고, 각 읍면의 수요에 맞게 배치된다.

완주군은 지난 4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교통약자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장애인 희망콜'과 관련한 중요 사안을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 결과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향후 장애인 희망콜)의 운영이 크게 4가지 분야에서 내년 1월부터 달라지게 된다.

먼저 운행되는 장애인 콜택시가 현재 6대에서 8대로 늘어난다. 이는 현

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한 것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콜로 이동편의시설 차량을 운영해야 하는데, 현재 완주군에 등록된 1·2급 장애인은 1585명이라는 점이 고려돼 차량 증가가 결정됐다.

또한 여성장애인 및 노약자의 탑승에 대비해 여성운전자를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봉동읍에 집중되었던 장애인 콜택시를 삼례 2대, 봉동 3대, 이서 1대, 소양 1대, 고산 1대 등 각 읍면 수요에 맞게 분산 배치한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라는 명칭을 '장애인 희망콜'로 변경된다.

다만 이용 기본요금은 현재의 1700원이 유지된다.

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철저히 준비·이행해 '교통복지 1번지 완주군'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는 김흥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복지담당자, 군의원, 대학교수, 관련 단체 활동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15년 4월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중요 사안들을 심의해 왔다.

이번 취재는 무주반딧불·특산물물을 전국에 홍보, 판매하고 더불어 무주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무주반딧불·특산물물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NH농협 무주군지부와 무주농협, 구천농협, 무진장축협, 무주군산림조합, 무주군 농업인단체 및 생산자단체 등이 후원했다.

4일 열린 개막식에는 황정수 군수를 비롯해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백경태 도의원, 박세복 영동군수, 오규석 기장군수, 출향인들과, 도시소비자, 무주군민 등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황정수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올해로 두 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지만 해를 더하며 모두의 박수를 받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농업인 여러분은 반딧불농부라는 자부심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해주고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내 가족, 내 고향을 위해 반딧불·특산물을 먹는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대 축제를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마을로 가는 축제와 즉석경매행사, 친환경 농산물 품평·전시회, 향토 먹거리를 비롯한 간식먹거리, 반딧불 머무른 우식 및 판매 홍보관, 곤충체험관, 가능성 버섯 전시·판매, 고령자 배추김치 시식 및 절임배추 할인 예약판매, 농기계 전시·판매, 소원나무 만들기 등의 부대행사도 3일 내내 즐길 수 있었으며, 귀농·귀촌, 자연농업 상담 부스와 건강체험관, 농산물 품질관리원 상담 부스 등도 운영되고 있다.

출향인 김 모 씨(57세)는 "축제에 와서 고향에서 고향사람들이 일년 내 정성껏 키운 농·특산물을 보지만 해도 배가 부른 기분이었다"며 "멀리 타향에서 살고 있지만 언제나 아름다운 무주가 자랑스럽고, 깨끗하고 안전한 농·특산물이 든든한 만큼 고향을 항상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황정수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올해로 두 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지만 해를 더하며 모두의 박수를 받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농업인 여러분은 반딧불농부라는 자부심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해주고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내 가족, 내 고향을 위해 반딧불·특산물을 먹는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대 축제를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올해 상반기부터 중앙부처 항우 공무원, 전문가, 정치권 등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통해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입체적인 확보 노력을 기울여 공모사업에서 국비 547억 원을 확보하는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완주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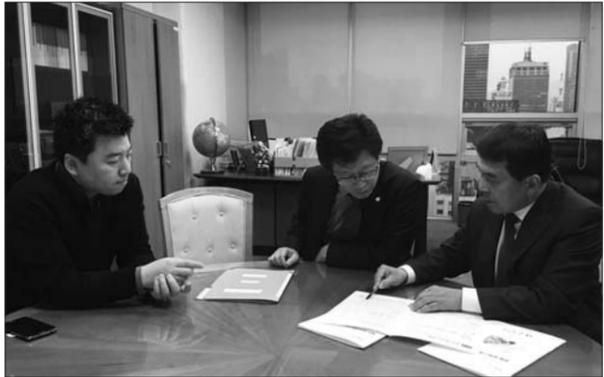
박성일 군수, 국회방문... 미반영·추가 증액사업 예산반영 동분서주

박성일 완주군수가 국회를 대상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 군에 따르면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박성일 완주군수가 직접 국회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 활동을 기울였다.

박 군수는 이날 국토교통위 안호영? 안규백 위원을 차례로 만나 화산~운주간 국도 17호선 개량사업 181억원을 건의한 뒤, 보건복지위 김광수 위원을 찾아 완주군 보건소 신축사업 96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 사무실을 찾아 서부내륙권 사업 삼례삼백마을 조성 311억원 및 경천 산수유마을 개발사업 200억원을 건의했으며, 예결위 김현미 위원장과 정운천 위원 사무실을 연이어 방문해 완주군 핵심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군은 국회에 상주하고 있는 전라북도 국가예산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국회 대응반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완주군은 올해 상반기부터 중앙부처 항우 공무원, 전문가, 정치권 등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통해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입체적인 확보 노력을 기울여 공모사업에서 국비 547억 원을 확보하는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버스타고 가을타고 장수로 GO~ 군, 시티투어 운영

장수군은 가을철을 맞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시티투어버스 첫 운영을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했다.

첫 운행으로 버스 40석 기준 5대, 200여명이 방문해 전석이 매진됐으며, 앞으로도 장수군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에 전주 한옥마을 르윈호텔 앞에서 출발하여 장수승마장과 논개사당·논개

생가 일대를 돌아보고 다시 전주로 돌아오는 순환버스 형태의 노선으로 운영 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장수의 역사와 문화·관광명소를 소개해주는 코너를 마련해 역사의식과 즐거움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 했다.

참여방법은 시티투어 홈페이지(www.nbtour.co.kr)와 남북여행사

(1588-1466)로 문의해서 일정을 예약 할 수 있다. 요금은 어른 8,000원, 경로·아동은 6,0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최용득 군수는 "첫 운행부터 많은 관광객이 장수를 찾아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장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리산권 7개 자치단체 체육대회 장수서 열려

제12회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가 지난 4일 한누리전당 다목적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됐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는 지역·역사·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지리산권 7개 자치단체가 화합과 결집을 통해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2번째를 맞았다.지리산권자치단체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장수군이 주관한 이날 체육대회에는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장수군 등 지리산권 7개 시·군 주민 800여명이 참가해 각종 체육대회와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주요 경기로는 축구, 고리걸기, 2013 각 탈레이, 제기차기로 각 시군을 대표한 선수들의 기량을 선보였으며, 화합마당에서는 각 시군의 끼와 재능을

선보인 무대가 펼쳐져 함께 우정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최용득 군수는 "백두대간의 명산 지리산 자락을 벗 삼아 살아가는 7개 시·군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 대회를 레드푸드와 메가 장수에서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이 자리가 지리산권의 화합으로 동반 성장에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상수도 동파방지 최선

진안군은 지난 4일 동절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 동파방지대책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달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를 상수도 동파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거

울철 동파 예방과 신속복구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작년 1년 동안 50여건의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접수되었지만 올해 1월 수도계량기 동파 사전대비를 위해 4,000여만원의 예산으로 동파방지작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전 가구에 배부했으며, 오는 11월 15일까지 배부누락자를 파악하여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지원반과 비상복구반을 맑은물사업소내에 설치하여 비상근무 체제를 갖추고 관내 6개 상수도 대행업체와 함께 24시간 비상체제로 야간 공휴일 관계없이 동파 신고를 접수받는다.

특히 전화접수(063-430-2520~2522)를 받은 즉시 신속 복구에 나설 예정이며 군 홈페이지에 동파예방요령 홍보에 나서는 등 동파사고 최소화와 주민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2회 무주반딧불·특산물대축제 개막식에서 황정수 군수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성료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을”

제2회 무주반딧불·특산물대 축제가 '안전한 먹거리, 반딧불이 가 배달합니다!'라는 주제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무주를 예체 문화관 주차장(특설무대)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축제는 무주반딧불·특산물물을 전국에 홍보, 판매하고 더불어 무주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무주반딧불·특산물물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NH농협 무주군지부와 무주농협, 구천농협, 무진장축협, 무주군산림조합, 무주군 농업인단체 및 생산자단체 등이 후원했다.

4일 열린 개막식에는 황정수 군수를 비롯해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백경태 도의원, 박세복 영동군수, 오규석 기장군수, 출향인들과, 도시소비자, 무주군민 등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황정수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올해로 두 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지만 해를 더하며 모두의 박수를 받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농업인 여러분은 반딧불농부라는 자부심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해주고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내 가족, 내 고향을 위해 반딧불·특산물을 먹는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대 축제를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마을로 가는 축제와 즉석경매행사, 친환경 농산물 품평·전시회, 향토 먹거리를 비롯한 간식먹거리, 반딧불 머무른 우식 및 판매 홍보관, 곤충체험관, 가능성 버섯 전시·판매, 고령자 배추김치 시식 및 절임배추 할인 예약판매, 농기계 전시·판매, 소원나무 만들기 등의 부대행사도 3일 내내 즐길 수 있었으며, 귀농·귀촌, 자연농업 상담 부스와 건강체험관, 농산물 품질관리원 상담 부스 등도 운영되고 있다.

출향인 김 모 씨(57세)는 "축제에 와서 고향에서 고향사람들이 일년 내 정성껏 키운 농·특산물을 보지만 해도 배가 부른 기분이었다"며 "멀리 타향에서 살고 있지만 언제나 아름다운 무주가 자랑스럽고, 깨끗하고 안전한 농·특산물이 든든한 만큼 고향을 항상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진장소방서, 소화기 더블 보상 실시

주택 화재에서 소화기 사용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지난 3일 장수군 계남면 일반주택 화재에서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진화한 정모(45)씨 가족에게 소방서장 표창장 수여와 기초소방시설을 더블로 보상했다.

화재는 집 주인 이모씨가 아침을 준비 하던 중 화장실에서 불이 치솟는 모습을 발견하여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119에 신고 후 이웃 주민

과 함께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진화 하였다.

소방서는 지난달부터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 소화기 이용하면 소방서장 표창장수여와 소화기를 더블로 보상 해주고 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전에 화재를 초기진화한 이웃 주민 정씨는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대형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서울 호남향우회 진안서 단합대회

서울시 금천구 호남향우회 500여명은 지난 3일 진안군 용담면(면장 박태열) 체련공원에서 단합대회를 열었다. 이날 용담면에서는 단합대회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수삼, 고구마, 잡곡, 건포도, 고추기름 등 계절 농·특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수삼튀김, 우영차, 생강차 시식 및 판매도 병행하여 이 역시도 모든 제품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행사에 참여한 호남향우회 회원들은 청정 진안고원 용담호에서 생산된 신선한 계절 농산물을 중간 유통단계 없이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고 순박한 고향 사람들과 정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태열 면장은 "농부들이 직접 농사지어 용담면 농·특산물을 한지리에 모아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특별리포트

무주군, 겨울철 재난대비 만전

무주군이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14일까지를 사전 대비 기간으로 정한 무주군은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산간 고립 예상지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로등급별 재설대책을 수립해 재설장비와 자재를 구비할 방침이다. 또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인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는 폭설과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13개 협업부서를 중심으로 재해대책 대응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과 상시 기상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는 한편 단계별 표준행동 매뉴얼을 마련해 기상특보가 발령하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라동식 안전재난과 재난방재 담당은 "재해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등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도 군청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올해의 관광도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 무주가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안전한 고장이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친환경농업 체험교육

진안군은 지난 4일 농촌과 도시학교가 협력사업을 통해 도농교류확대 및 농업 이해 증진 도모를 위한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난 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모내기부터 추수까지 전 과정을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재배과정 전반과 수확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사업이었다. 도시 어린이들에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촌체험을 통해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수확과정에서 밭주머니 밭주머니 수확한 쌀로 떡을 만드는 등 다양한 행사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내가 농사지은 쌀로 만든 음식이라는 소중함까지 아는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 "학교에 조성된 논은 학생들에게는 벼의 생육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기구를 이용하여 수확하는 등 벼 생육상황과 농업에 대한 학습효과도 거두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적상파출소, 수확철 농축산물 절도예방 추진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 적상파출소(소장 정상인)는 수확기철 농·축산물 절도예방 순찰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도로가에 벼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절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기적인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이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엠프방송 등을 활용해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영농철 농산물 보관창고, 축사, 인삼밭, 빈집털이 절도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적상자율방범대 등 다기능 협력치안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상인 파출소장은 "123공감순찰활동과 다기능 목 검문을 적극 전개해 수확기철 농산물 절도예방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 '고종시·걷기대회' 성황

완주군이 주최한 고종시 마실길남만 걷기대회 행사가 전국에서 많은 동호인과 일반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완주사랑 실천 봉사대, 금수강산 길따라 걷기 등 400여명의 동호인과 일반시민이 참석하여 위봉사에서 위봉폭포, 시항정 등 10.5km 구간을 걷는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숲해설가에게 고종시의 유래 및 생태이야기 등을 들으며 위봉사와위봉폭포를 탐방하고 향기주머니 만들기 체험 등 단순히 걷는 길이 아닌 감성과 느낌이 있는 길 걷기 행사로 한 차원 높여 기획됐다.

완주=이종복 기자